



COP27 그린존 전시장 전경



COP27 UN 글로벌 이노베이션 허브 세션장

탄소중립도시

COP27 참가...아시아 대표 탄소중립도시 선도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이집트 삼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했다.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특별 초청에 따른 것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중앙정부보다 발 빠르게 이행점검을 추진, 그간 누적된 경험과 정책 보완사항 등을 공유하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이번 COP27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역할 및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할 수 있었다. 시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아시아 챔피언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COP27에 초청된 것은 UNFCCC의 도시파트너로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자

로서 도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양의 행보가 전 세계 도시행동의 시작이자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는 이번 COP27을 통해 시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전 세계 도시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COP33 개최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COP27 회의장 입구 전경

해외 벤치마킹

이스라엘·UAE 방문...기업유치전략 벤치마킹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 선진국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적극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10일~14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 기업유치 및 육성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우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혁신청, 와이즈만 연구소, 바이오하우스 등 기업유치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개 기관을 방문, 각 기관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육성에 특화된 나라인 만큼,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대표 성공사례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13일에는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헬스케어시티 및 세계무역센터를 시찰, 세계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현황 및 성공사례를 파악했다. 공항 프리존에서는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인천공항 등이 인접한 고양특례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으며, 헬스케어시티에서는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략과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했다.

세계무역센터에서는 부사장과 면담을 통해 두 도시 간 글로벌 이벤트 추진 가능성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14일에는 친환경 혁신도시를 표방하는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시는 다국적·스타트업 기업 진출의 요충지인 마스다르 시티의 핵심 전략을 파악하여 고양특례시에 형성된 바이오·미스 등 전 분야의 지역 전략산업을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특례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양특례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특례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조치했다.

고양특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은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였고, 올 9월 월간 고양특례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를 통해, 그간 위축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특례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바이 공항 프리존